



# 마창대교 지속가능경영 우수기업 대상 수상

다양한 사회공헌활동, 환경보호 노력 돋보여

경남 창원을 가다 보면 아름다운 마산만을 가로지르는 마창대교가 한눈에 들어온다.

지난 2008년 7월 개통된 마창대교는 1.7km 해상교량으로 하루 4만 3천 대가 이용하는 경남 남부권 생활도로다.

이 도로를 운영하는 주식회사 마창대교는 최근 한국언론인협회가

주최한 '제16회 국가 지속가능경영(ESG) 콘퍼런스' 행사에서 우수기업 부문 대상으로 선정돼 기획재정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이번 수상은 마창대교가 그동안 다양하게 전개한 사회공헌활동과 환경보호 노력이 대외적으로 인정받은 일이자 수상일인 7월 1일이 마창대교가 개통한 지 꼭 14돌을 맞은 날이어서 의미가 컸다.

국가 지속가능경영 표창은 ESG 즉,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 영역의 가치 창출을 모범적으로 실천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수여하는 상이다.

##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으로 지역과 함께 발전

마창대교는 2017년 사랑의 열매와 협약을 맺고 매년 정기 기부 중이다. 창원시와는 '행복 나눔협약'을 맺고 초·중·고 장학사업,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 경남FC 사랑의 골 기부, 복지 시설 기부 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런 활동은 마창대교가 지역과 상생 발전하기 위한 일환으로 펼치는 일이라서 지역민들로부터 호평을 얻고 있다.

지난 7월에는 경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사랑의 열매)와 1억 원 기부 약정을 맺어 경남 7호 나눔 명문기업에 이름을 올렸다. 나눔 명문기업은 지속가능한 경영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더 나은 세상을 이루고자 하는 기업들이 참여하는 복지 프로그램이다.

## ISO 50001 인증으로 선제적 에너지 경영 전개

마창대교는 해상교량으로서 해양오염을 방지하고 탄소배출을 억제하고자 에너지 절감

과 환경보호에 적극적으로 앞장서고 있다.

지난 6월에는 ESG 경영의 일환으로 미국 인증기관으로부터 ISO 50001(에너지 경영시스템) 인증받았다.

에너지 경영시스템은 회사가 에너지 이용효율을 개선하도록 경영목표를 설정하고, 목표 달성을 위해 국제규격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국가 지속가능경영 우수 기업 대상 수상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경영활동을 일컫는다.

회사는 이미 ISO 9001(품질), 14001(환경), 45001(안전보건) 경영시스템을 갖추고 도로 이용자의 안전과 편익을 위해 더욱 노력하고 있다.

## 2030 탄소중립을 위한 목표설정과 추진

회사는 대교 관리 운영으로 발생하는 탄소 발생량 감축을 위해 2030년까지 탄소 발생을 절반으로 줄이고 2040년까지 '제로' 달성목표를 설정하고 실행에 들어갔다.

우선 대교와 관리시설에 사용되는 전등을 고효율 LED로 지난해 전면 교체해 탄소 배출량을 크게 줄였다. 향후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는 물론, 정부 정책으로 시행 중인 친환경 녹색 프리미엄 전기 구매, 전기차 전환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도민의 이용 편익을 높이기 위해 도로를 최적 상태로 관리하고 산업재해 예방과 지역사회와 상생 발전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창원 힘찬병원 기부

마창대교는 환경보호, 사회적 기여 및 투명한 지배구조에 중점을 둔 ESG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 중인 맥쿼리한국인프라투자회사(MKIF)가 대주주로 있다.

## 사계절 아름다운 마창대교, 관광명소로 인기몰이

길은 세상을 연결하고 사람과 사람을 연결한다. 마창대교는 새로운 세상의 빛으로 사람과 세상을 연결하는 가교로서 마산만의 아름다운 풍광과 어우러져 보는 이들의 마음을 낭만과 행복감으로 가득하게 한다.

특히 이벤트 조명을 연출하는 야간조명은 지역민은 물론 도로 이용자가 계절변화에 따라 색다른 정취를 느끼기에 충분하다. 이에 전국 사진 마니아로부터 입소문을 타고 즐겨 찾는 촬영명소로 인기를 끌고 있다. ▼

